

제3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11. 7. 22(금), 16:00~19:30

2. 장 소 : 종합관 10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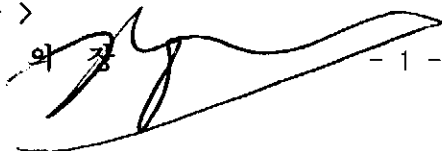
3. 참 석 : 강명구 의장, 주동표 부의장, 이재호 의원, 조중열 의원, 박정웅 의원, 박철균 의원, 서용훈 의원, 왕진욱 의원, 김진우 의원, 이해진 의원, 윤갑희 의원, 김근태 간사 (13명 중 11명 참석, 불참 윤성승, 박윤규 의원)

의장 강명구 : 13분 중 11분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 대표 2사람이 있었는데 사회대학생회장이 휴학을 하여 대신하여 왕진욱 법학과 4학년 학생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적합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었고 임명 되었습니다. 왕의원께서는 소개를 하고 간략하게 인사 드리세요.

평의원 왕진욱 : 안녕하세요. 이번에 평의원 의원이 된 법학과 06학번 왕진욱 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학생이니만큼 교수님들에 비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고 또 더 자세하게 알지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학생이니 만큼 학생다운 의견 그리고 학우들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명구 : 성원이 되었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차 아주대학교 대학평의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011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와 의과대학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입니다. 그리고 심의 사항으로서 아주대학교 학칙개정안이 있습니다. 확인 전에 제가 경과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11년 4월 29일날 제31차 평의회에서 아주대학교 병원과 본교에 대해서 결산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 결과 추가자료 요청을 10건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10건 중 첫 번째는 2008년, 2009년도 법인 파견 직원 인건비 내역입니다. 법인에 파견한 직원 인건비는 무엇인지 입니다. 그 다음 법인의 경상 전입금 약정 및 변경 통보의 문서화 추진상황입니다. 세번째는 교원 중에서 별도로 그것을 책정하는 경우에 누가 누가 있고 기준이 내역이 무엇이나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총학생

< 간서명 란 >

의 장  - 1 -

회 관련예산 2008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보자. 이 네 가지는 기획처 요구 자료였습니다. 그 다음 총무처에 요구한 자료는 첫 번째 실제로 법인에 출연금으로 구축된 자산 내역을 밝혀라. 이것이 아마 900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약학관의 건축수요자 합법성 검토 자료를 달라. 일곱 번째가 종합관 건축사 선정 관련 서류를 좀 보여 달라. 여덟 번째가 2010학년도 총장 직무대행 업무추진비 50만원이상 사용 상세내역을 밝혀라. 아홉 번째가 펀드 잔고 통장 사본을 보여 달라. 마지막으로 병원자료로서 열 번째로 웰빙센터와 실험동물센터 지명 경쟁 입찰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렇게 10개였습니다. 4월 29일 평의위원회가 끝난 며칠 이후 학교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 반이 지난 6월 14일에 도착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전에 총장실로 이메일을 몇 번 띄웠습니다.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6월15일 날 이재호총무님과 저하고 안재환총장님과 기획처장 총무처장 이렇게 4자가 면담을 해서 6월 14일 하루 전에 받은 추가 요청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개 중에서 6개 자료를 학교 측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지 않은 4개의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하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4개 자료가 무엇이나 하면 교원 중 별도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 책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나 이것은 저희가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법인 출연금 기본금의 계산 근거를 대라. 회의 때는 이준섭 총무처장님이 못 보여줄 이유가 없다. 다만 법인의 양해를 구한다음 제출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2010년도 총장 직무대행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이것은 그 당시 4월29일 회의에서는 못 보여줄 것이 어디있습니까?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6월15일 면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보여 주겠다. 대외비형식으로 공개를 하고 총무가 와서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웰빙 센터와 실험동물센터 건축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데 그 당시 부원장님이 빙부상을 당해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메일을 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개인 별도 급여 관계는 양보를 하고, 그 후에 법인 출연기본금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재호총무님에게 자료가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웰빙 센터에 관해서도 자료가 대충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총장직무대행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공개 못한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보냈느냐하면, 개인 돈이 아니라 공금을 사용한 것이니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 장관이하 시장까지 거의 모든 사람

< 간서명 란 >

의



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는데 작은 단위까지도 아니고 50만원 이상인데 못 공개할 것이 무엇이나. 정 안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 학교 이미지 실추를 걱정 하기도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 알아서 처신할 것이다. 최근 여주 대학교에서 발생한 공금 유용 관련 아주 지저분한 일들이 많아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도 조심해야한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투쟁 관련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대학이 점점 투명해져야 한다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칼럼에도 썼지만, 반값 등록금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대학 내에서 투명한 공개정보와 감시 견제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대학 내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등록금 문제의 후속조치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몇몇 평의원 분들과 대학의 투명성 관련하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과부인지 감사원에서 펀드관련 감사를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아주대학교는 감사대상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교수회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슈를 미리 교과부에 제기해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방주사를 맞은 격으로 저희가 면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학교는 교수회에 감사패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드리고자하는 하는 말씀은 대학평의회에서 재단과 학교본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누굴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격한 질문이 있더라도 받아주시고 더 나은 학교가 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가지 추가 관련 사항 중에서 이재호 교수가 받아보신 법인출연기본금 계산근거와 웰빙 센터 두 가지와 관련 말씀해주시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말씀하신 법인출연기본금의 계산 근거 자료를 보내주셨고 확인을 했습니다. 계산은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구축물에 대해서 좀 오래된 일이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법인에서 출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교비에서 출연이 된 것인지 불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의료원에서 건축 관련 자료를 내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컸었습니다. 결국은 총장님께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자료가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3개 회사 지명경쟁입찰이었습니다. 그 세 개 회사를 선정한 근거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아주대학교에 50억원 이상 계약한 실적이 있는 회사들로만 선정했는데 3개회사가 된 것입니다. 중간과정을 보니 2개회사, 즉 대창과 대우자판이 응찰을 했고, 입찰한 액수는 우리 쪽에서 처음 생각한 액수보다는 큰 액수였고,

< 간서명 란 >

의 장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재입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략 우리가 생각한 액수로 계약하게 된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보충해서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현재 자료상에 나타나는 상황만 말씀 드렸습니다. 건축 관련한 얘기들은 실제로 보면 드러나 있는 액수를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받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혹은 내용에 있어서 학교에 요구하거나 경종을 울리는 것은 시간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재호 교수 말씀하신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것입니다. 요구했던 10개 자료 중에 건축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약학관 같은 경우는 시일이 급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답변해 주셨고 종합관 같은 케이스는 2회사가 입찰을 했는데 보통 입찰금을 5%내는데 입찰 금액이 기억이 맞는다면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진흥기업이 16억 3천2백80만원 써냈고, 대우자판이 16억 3천3백 원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총공사비가 400만원 차이 나는 케이스입니다. 이재호 교수님께서 상상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것을 총장님과 기획처장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더니 우리도 경쟁 입찰을 시키고 싶었는데 알아서 안 들어온다 라는 요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찰관련 하여 경인일보에 손바닥 만한 기사 나온 게 전부입니다. 나중에 무슨 감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깨끗하게 조금 더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쪽으로 자꾸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저도 6월15일에 온 자료를 봤는데 다른 평의원들은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관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 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2009년 3월 30일 날 입찰서류를 받았습니니다. 그날 진흥기업과 대우자판 두 곳에서 왔는데 이틀 뒤 2009년 4월 1일 날 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업체선정 심사위원회는 아주대교수2명, 성균관대 등 건축과 외부교수 5명이 들어오고 아주대에서는 김병관총무처장, 제해성교수 이렇게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다른 학교에 인사성으로 가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나면 어떻게 헤드릴까요.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심사를 온 다른 교수들이 아주대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엔 무엇이나면 아주대교수 두 사람이서 300억짜리를 다 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입찰제안서를 받고 이틀 동안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일을 뭐라고 한 다기 보다 이런 식으

< 간서명 란 >

의 장



로 입찰되는 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빨리 다른 평의원들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김팀장님, 자료를 몇 부 주셨죠? 저를 포함해서 몇 부 주셨죠?

기획팀 이수영 : 의장님과 이재호 교수님께만 전달했습니다.

기획팀 김근태 : 전달된 자료를 보시고 추가 요청 자료가 있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지난번 회의의 결과로서 10개의 추가 자료 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분들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시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취합이 되는대로... 사실 이것이 취합되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어떤 것은 바로 전달해 주시고 어떤 것은 상당히 늦어졌고, 그 다음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양쪽이 어디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대학본부와 대학평의원회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10개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6개는 받으셨고 나중에 4개는 추가로 받으셨고 검토한 결과가 4 가지에 대해서는 이재호 교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평의원 분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쪽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평의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머지 평의원들은 알고 있었고 나머지 평의원들은 모르고 있었고 양쪽으로 나뉘지 않아요. 평의원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학교 측에서 혹은 평의원회에서 요구해서 온 자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공유를 하고, 또 교수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도 외부에서 온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유를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사항 10개는 평의원회에서 저번 자문과정에서 대학본부에 요구하기로 이미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오고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밀고 당기기를 하는 상황 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받겠다는 것은 평의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상황이고, 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생각은 모두 다 취합된 다음에 보

< 간서명 란 >

의 장  - 5 -

내드린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봐서는 시일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 취합되지 않았더라도 바로바로 보내드리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재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명입찰을 주는 경우와 공개입찰을 주는 경우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럴 때는 지명입찰을 주어도 된다. 이럴 때는 공개입찰을 주어도 된다. 공개입찰을 주는 경우와 지명입찰을 주는 경우가 구별이 되나 이겁니다.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지명입찰인거죠?

평의원 이재호 : 약학대학은 수의계약입니다.

평의원 강명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교과부에서 약대 인가를 받기위해서 급하게 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러면 종합관은 공개입찰입니까? 공개입찰 대창, 대우자판, 주대우 이렇게 3개가 들어온 것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그렇습니다. 대창, 대우자판, 주대우가 들어온 것은 웰빙 센터와 실험 동물센터 이것 두 가지 입니다. 종합관의 경우는 전체 공개 입찰이었고, 약학관의 경우는 수의계약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지명 입찰을 3군대를 준 이유가 뭐니까?

평의원 이재호 : 거기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서류를 보내온 것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래 아주대학교 혹은 의료원에서 50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던 경력이 있는 회사 3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도 지명입찰로 세 군대를 준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도 주대우는 빠졌고 대창하고 자판이 붙어서 결국 대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론 아주대학에 대한 성격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아주대학의 건물형태라든가 이런 요구 점을 잘 채택을 해준다는 장점도 있으나 그 당시 재단에 요구했던 내용은 아주대학을 가장 사랑하는 조직이 동문조직인데, 동문조직에도 이런 기회를 주고 그때 아마 학생관 증축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대의 역사가 얼마 안 된 관계로 학생들, 교내 가족들에게는 동문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키울 수 있고 해서, 동문기업도 지명 입찰 건을 하나주는 것이 어떠하냐고 건의 한 적이 있는데 발전적으로 학교입장에서는 지명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항상 주는 쪽만 지명입찰을 받는

< 간서명 란 >

의 장



- 6 -

것이 아니고, 누가 바도 대창과 자판건설과 주대우의 입장을 보면 대창과 대우자판과 주대우는 간접비 자체가 틀립니다. 서로 같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꾸로 누가 보더라도 대우건설은 왜 들어오지 할 정도입니다. 2군 업체는 2군 업체 똑같이 지명입찰을 주든지 1군과 2군을 섞어서 하든지 이런 부분은 원칙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상당히 민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개, 투명, 경쟁 이런 맥락 하에서 동문에 대한 일종의 배려 이런 것이 가미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학 내의 상황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액수가 가장 큰 것이 건축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당연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에 입각해서 가장 싸 값에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나쁘다는 사실을 검증하기는 힘들지만 누구든지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재단의 의무랄까 이런 모럴헤저드에 대해 사회 여론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대학은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총무처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스템을 해야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되는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평의원 이재호 : 아까 자료의 전달 부분에 대해 말씀 끝을 못 맺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변명 같지만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 의료원의 자료 같은 경우는 아직 의장님도 전달 못 받으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셨고 제가 의장님께 전달해 드려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워낙 자료 전달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합된 것이라도 우선 평의원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추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메일도 치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추가경정예산 심사위원 회의를 더 앞당겨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버렸습니다. 자료가 와야 보고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진위원이 저와 상의했던 것을 제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정보를 미리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말씀 들으니 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대창, 대우자판, 대우건설이 모두 대우 그룹사였습니다. 그룹사 내지는 비계열사였습니

< 간서명 란 >

의장  - 7 -

다. 굳이 그렇게 해서 오해를 살 이유도 없고 빠져나올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동문기업을 운운한 것은 제가 동문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문 우호적인 특혜 이런 말씀으로 비취 질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조선일보에 최저 입찰제에 대한 불합리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스트 벨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스트 벨류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아주대학 일원의 자부심 이런 부분이 건축물 하나 짓더라도 벨류를 따질 필요가 있겠다.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측면에서 동문 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동문기업에 대한 특혜를 운운한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조중열 : 지금 건축 과정에 대한 것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 될 것도 아니고 오늘 총무처장님께서 나오셨더라고 해결을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확보 되었으니 이것을 평의원들께서 보시고 이 중에서 학교에 나오실 수 있는 분 몇 분모시고 아주대 건축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평의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앞으로 한 달 뒤가 되던 두 달 뒤가 되든 건설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것을 평의원들이 전부 연구를 하여서 이리이러한 점을 코치를 하고 의결사항으로 남겨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총무님 요구한 의견이 끝난 다음에 문안을 작성해서 각 의원님들께 돌려 동의를 구해서 의결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지금은..

의장 강명구 : 지금할까요?

평의원 조중열 :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1차 자료가 겨우 확보 되었다는 것이지 거기서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공부 가 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료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자문도 듣고 해서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학생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창이나 대우자판이나 동문에서 하든 사실 싸고 질 좋게 하면 되는데 그런 객관성을 잃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대표자 생각에서 재단과 관련된 기업이 하던 동문과 관련된 기업에서 하든 객관성을 상실한다면 마찬가지로 일 것 같습니다. 조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의원회에서 객관성을 펼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얘기가 나온 것이니 최대한 빨리 다음

< 간서명 란 >

의장

평의회 날짜를 잡아서라도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강명구 :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죠.

평의원 김진우 : 학교에서 이런 큰 금액의 발주를 하는데 학교의 규정이 없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의회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규정을 보고 규정에 입각해서 집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기준을 만드는 것은 평의회 기능도 아니고, 김진우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준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정도는 되지만 서용훈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저희 기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가이드라인까지는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한 것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요약해서 투명하게 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서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비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지금까지 진행했던 건축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상상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엮는 겁니까?

의장 강명구 : 지난번 총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건축비 관련해서 좀 더 경쟁해서 싸고 좋게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려면 저희가 계좌도 봐야하고 여러 가지 추적을 해야 하는데 검찰도 아니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들어오는 회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그렇죠. 이재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상력의 문제는 굳이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누구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합니다. 기존의 우리의 히스토리가 다른 곳이 들어와도 건설사에서는 입찰서류를 내는데 엄청난 제안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경쟁을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선투입해서 입찰서류를 내겠습니까? 총장님 말씀대로 오픈했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우리는 열어놨는데 안 들어오더라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나 이 말씀인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몇 억 공사에 400만원 차이난다는

< 간서명 란 >



- 9 -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지난번 추가자료 요청 자료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평의원 서용훈 : 건축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신학생회관 보면 2~3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아주대 안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신학생회관 1층에 보면 학교부서가 들어와 있는데 ASC나, 학생지원센터, 사회진출센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1층에는 천장에 에어컨 휘센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는 학생기구 중에서 나름 학교에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할 수 있는 언론사, 총학생회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반대편은 과 학생회 실이 있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문제는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여서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단대학생회실, 반대편에는 동아리방이 있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전부 없습니다. 4층에는 동아리방에는 에어컨 없지만 심리 상담 센터에는 작은방에도 휘센이 달려있습니다. 교육기관이고 학생들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이나 학생기관 중에서는 권력기관에는 냉방장치가 잘 되어있어 있는 반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소관사항이 평의원회보다는 학생처에 요구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의원 서용훈 : 요구가 아닌 결정과정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 과정으로 설계가 되었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신학생회관이 그런 결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의장 강명구 : 학생회관에 동아리방과 과방에는 왜 에어컨 없는지 설계할 때부터 없었는지 알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의원 서용훈 : 네, 그 과정을 추적하고 싶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3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먼저 병원부터 2011학년도 의료원 추가경정(안)을 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금인상, 전년도 승인 미집행분 이월, 예비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 2011학년도 병원회계 1차 추경예산(안) 수입 및 지출
433,610,0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2011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 수입 및 지출
61,961,5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강명구 :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주동표 : 인건비에서 일시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저희가 임금협상을 할 때 노조 주장은 9.8%였는데, 여러 가지 경영상으로 임금인상을 많이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JCI 인증을 하면서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임금인상은 2%를 하되, 격려차원에서 일시금으로 5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보면, 수탁연구수입이 줄고 기부금 수입이 늘었는데 이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대우의료재단에서 임상연구비로 1억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회계자문결과 수탁연구수입에서 기부금 계정으로 전용 한 것입니다.

의료원 기획팀 조철우 : 제가 추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수탁연구수입에 반영했는데, 자문을 받은 결과 연구과제 및 결과 등 대가성 없는 지원금은 지정기부금 수입이 맞다하여 수탁연구수입 1억을 차감하고 지정기부금수입 1억을 늘리는 것으로 전용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5페이지에 보면 기초의 자금에서 운영자금은 이해가 가는데, 외부자금 33.1억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의료원 기획팀 조철우 : 국고보조금, 위탁운영비 등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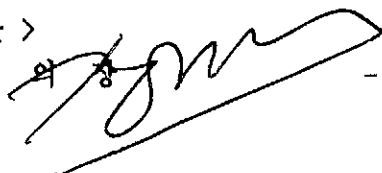
평의원 이재호 : JCI 인증 격려금이 6페이지 인건비에도 있는데, 7페이지 관리비에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이것은 용역직 인건비를 말합니다. 의료원 소속 인건비로 나갈 수가 없어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같은 7페이지에 해외사업관련 국외여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사업을 뜻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특정사업이라기보다는 하노이사업 뿐만 아니라 중국 협력병

< 간서명 란 >



원과의 교류 등 해외병원과 관계된 사업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주로 누가 가십니까?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협력병원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의료원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병원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번 회의 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노이사업은 실질적으로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결정이 완전히 났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설비나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은 하노이 측에서 하고, 우리는 인력 교육 등의 위탁경영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투자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위탁경영을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대우의료재단에서 기금을 받아서 베트남 현지 의사들 교육비용으로 쓰거나, 향후 오픈했을 때 필수 인력이 파견 될 경우 인건비를 그쪽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수입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큰 그림을 그려서 전략적으로 판단 해보셨습니까? 아주대학교 병원이 국내에서도 경쟁이 심한 위기상황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 안 들이는 인력투자는 괜찮지만, 만약 넉넉지 않은 자원으로 투자를 할 경우 사업적으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우디나 중동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노이쪽 역시 저희가 비용을 크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운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사업의 다각화나 의료원 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해외사업에 눈을 돌린다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투자를 할 생각은 없고, 기술력 수출과 같은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설립자와 관련하여 의문이 많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저희도 가능하면, 아주대 의료원에서 생긴 기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강명구

평의원 이재호 :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면, 인력교육은 해오고 있었고 일종의 인력 파견 형태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 것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기보다는 저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기술의 시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와 본교 간에 조금 더 원활한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제대학원장을 할 때 KOICA하고 유네스코를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의대와 협의하여 자원봉사 학생들을 보내 건강증진 프로젝트 등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니깐 그쪽에서 반색을 했습니다. 굳이 특정한 지역에서의 전망이 좋지 않은 사업보다는 다른 경우도 비교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선교사가 의료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것처럼 저희도 향후 정부차원에서 공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가입 국가는 GNI의 0.25%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0.14%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조 가까이 해외 원조가 들어 갈 텐데, 참여를 하면 명예뿐만 아니라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알려주십시오.

평의원 이재호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전출금을 보면, 임상교원인건비와 간호대학신축기금 전출금이 증가된 반면, 그만큼 교비운영비 전출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교비운영비 전출금이 감소되면, 실제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감소한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렇지 않습니다. 교비에서의 관리비나 운영비 등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의료원 기획팀 조철우 : 교비 운영비 전출금이 감소한 것은 실제 작년 결산에서 이월된 자금으로 충당 할 수 있어서입니다. 전기이월자금이 44억이 늘었는데, 그 중에 20억은 명시이월이고 나머지 24억은 관리비 절감 등으로 이월된 부분인데 그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해진 : 6페이지 인건비 정기인상 2% 금액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올해는 타결이 빨리 진행 되었습니다. 보통은 9월에 진행되는데, 본예산 때는 예측되지 않아 통상적으로는 예비비에 산정해 놓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11페이지에 예비비 사용내역에서는 인건비 인상이 43.7억으로 되어 있는데, 6페이지 인건비 증가는 33.8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교비 임금인상을 포함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하반기 긴급사업 24.6억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것은 예측된 사업이 아니라 기타 긴급 사업을 대비하여 예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평의원 김진우: 6페이지에 파견용역 격려금은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 7페이지에 용역근로자 격려금은 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네, 파견근로자는 용역직과는 다릅니다. 파견근로자는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용역직은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역비)로 나갑니다.

의장 강명구 : 추가 질문사항은 없으십니까? 의료원 추경(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추경(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수입
170,646,949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11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지출
170,646,949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강명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보면 돈이 좀 더 들어온 게 주로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 쪽에서 더 들어왔고, 등록금하고 국고보조금 더 들어왔고, 쓴 것은 주로 운영비에서 약간, 인건비하고 자산 취득한 것, 그다음에 약대 건물 짓는데 많이 돈 들어간 거 같고 들어간 돈 하고 나간 돈의 큰 흐름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입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수입 중에서 국고보조금 전입은 많이 됐는데 경상비 전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

< 간서명 란 >

의 장  - 14 -

이너스가 되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로는 토지를 매매한 돈이 안 들어 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꼭 토지가 매매되어야지 경상비가 전입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큰 그림 그렇게 됩니다....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주시지요.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전입금 들어오는 데 있어 변동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통보를 받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전반기 전입금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문서로 통보를 받는 절차가 있었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없었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요구했었으나 구두 통보도 하나의 통보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 설명 중 경상비 전입금 감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함.

평의원 이재호 : 문서 통보에 대해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합의되었는데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합의는 안 된 거 같고요. 우리는 문서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두로 통보받은 것이죠.

예산팀장 조정숙 : 경상비 감소와 관련된 자료는 주셨고 다만 공문만 받지 못한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관련자료(back data)는 문서로 줬는데 그걸 공문이 아닌 구두로 통보를 하고, 경상비를 못 주는 이유에 대한 관련자료(back data), 경기도에서 온 관련자료(back data)를 보내왔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앞으로도 문서로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꼭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법인에서도 문서 하나만 쓰면 되니까, 실제로 앞으로도 문서로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저희가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관련자료(back data)를 다주는 것을 보면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요. 이왕이면 문서로 하면 좋겠죠.

의장 강명구 : 이왕이면 문서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법률을 잘 아시는 이사장님이 모든 학교 행정은 문서를 통해서 정확히 해야 한다는 걸 왜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잘 고치려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하십니다. 숫자 관련자료(back data)를 다 주셨으면 당연히 문서 한 장에 도장 꼭 찍어서

< 간서명 란 >

의장


주시면 기록에 남는데 왜 그걸 말로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법하신 분이.

기획처장 김민구 : 다시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서로 해달라고.

의장 강명구 : 지금 보면 등록금 수입이 늘고 학교 국고보조금이 늘고 했는데 줄은 것은 토지를 매매를 한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재단에서 많지도 않은 3억을 못주겠다고 하고, 더 들어온 돈 가지고는 빼서 약대 건물 짓는데 쓴 것이 추정 관련하여 대충 큰 그림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공문서로 정확하게 밝히시고 지금은 돈 못주어서 미안한데 힘 합쳐서 잘해보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평의원회는 동창회, 학생회, 직원, 교수회 네 개 단체가 모인 최고기구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힘들지도 않은 것인데 증거 안 남기려고 하시는데 밀로만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이독경이라고들 하는데, 처장님 제 말 틀립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문서로 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의장 강명구 : 당연하죠. 가운데서 곤란하시겠지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을 당연히 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6쪽에 약대신축관련 건축기금 인출이 1,340백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이 줄어든 부분은 운영비 등을 절감해서 기금을 인출하지 않고 건축비를 마련을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등록금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기금 인출을 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적립금이 계속 줄어드는 학교거든요. 건물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능하면 적립금을 아껴보려고 한거죠.

평의원 이재호 : 예, 하나 더 여쭙보고 싶은 게 학부선도화사업 또는 학부선진화사업에 있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인지 모르지만 학부선도화 사업에 행사비하고 회의비가 14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적정한 액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46백만원이 행사비하고 회의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학부선도화 사업의 총 예산이 2,980백만원, 즉 3,000백만원쯤 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사업이 많은데요. 예산팀장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조경숙 : 2,980백만원 중에서도. 교양교육과정에 선진화가 874백만원이 있고요. 전공선진화가 50백만원, 비교과과정 쪽에 615백만원, 학생선발선진화 60

< 간서명 란 >

의 장  - 16 -

백만원, 학사제도및학생지도선진화 가 210백만원, 비교과 쪽에서 615백만원, 학사 지도 및 학생지도 선진화가 210백만원, 교육학습지원체계선진화가 430백만원 그리고 기타 교육의질 관리체계의 선진화가 224백만원, 사업관리 및 운영 56백만원. 이렇게 해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2,980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각 교양은 교양대로 전공은 전공대로 비교과는 비교과대로 각각의 영역별로 모든 행사비 및 회의비가 총 집계된 예산 추경 자료이기 때문에 총 2,980백만원 대비 행사비 및 회의비 부분은 큰 금액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전체 금액 중 행사비 및 회의비가 5% 정도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회의비와 행사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의장 강명구 : 행사비나 회의비라는 것이 회의 수당이나 식사하고 그런 비용 아니겠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가 학부교육선진화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컨설팅을 하면서 회의비 같은 경우 지적을 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쓰지 말고, 회의를 할 경우에는 형식적인 회의록이 아니라, 진짜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비는 아마도 이보다 적을 거고요.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데 행사비와 회의비를 합쳐서 5%로 정도 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교 전체 예산에서 회의비와 행사비는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학교예산에서도 그 비율은 5% 이내일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겠죠?

기획처장 김민구 : 5%보다 적을 겁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행사비가 1,600백만원 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1,600백만원이면 전체 예산이 170,000백만원이니깐 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학부선도화 사업에서 비율이 좀 많은 편이네요. 왜냐하면 행사비 관련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돈 썼더니 흥청망청 쓴다는 인상을 실제로는 주기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부선도화사업이 출범하는 단계라서 올해만 그런 것인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5% 정도의 비율은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사비하고 회의비는 항목에 대해서 다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 간서명 란 >

의장 강명구

냥 혈으로 집행 했다가는예산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CE 사업의 총괄 컨트롤타워를 새로운 팀, 사실은 이름이 바뀌는 것이지만 학사기획팀으로 교무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곧 발령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직원들이 배정이 돼서 총관리를 할 것이고, 교무처장이 총괄 책임을 맡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예산쪽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게 예산을 써야 됩니다.

의장 강명구 : 컨설팅은 어디서 받으십니까? 회사에서 받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컨설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컨설팅 멤버를 했었고요. 계속 하고 있죠.

의장 강명구 : 그럼 컨설팅을 받으면서 한국연구재단에 돈을 줘야 하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돈은 안 받죠. 연구재단의 예산으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의장 강명구 : 회의비에서 컨설팅 fee는 안들어 간다는 거죠

예산팀장 조경숙 : 네,

의장 강명구 : 당연히 그래야죠

예산팀장 조경숙 :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린다면요. 교수역량개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수학습지원체계선진화라는 큰 사업 내에 교수역량개발이라는 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 교육진행행사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수업진행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교수법 프로그램워크샵을 한다든지..이러한 행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전체 행사비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 프로그램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겹치지 않는습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딱 뜨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도 이 학부선도 ACE사업에서의 비용을 활용할 수 있고요.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거라면 단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설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쭙본 것은 광범위 하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특히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몇 가지 사업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학

< 간서명 란 >



교에서 본래 진행하던 사업에 해당하는 지출을 하면서 그것을 대응자금의 대응지출의 형태로 명목상으로 잡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조정숙 : 추정보고서에서 나타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에 대응이 아니고요. 국고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지출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국고수입은 2,980백만원이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지출이 편성된 항목들이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지출들은 모두 국고입니다. 교비가 아니고.

기획처장 김민구 : 이 대응이라는 것들은 교비가 아니고 국고입니다. 국고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러한 지출 계정으로 국고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다면 재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군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지만 잘 써야 됩니다. 교육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의 질이 좋아져야하거든요. 이 국고를 사용함으로써..

의장 강명구 : 등록금 수입이 실제로는 한 2,700백만원 쯤 늘었는데 실제로 보면 장학금은 1,100백만원 정도만 늘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에 추정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일반관리비 주요증감요인에서 부서이전비용이 행정부서사무실 88백만 원이고 법전원이 99백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물비용이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울곡관 건물 3층을 모두 새로 공사하고 다시 부서가 이전하려면 또 공사를 해야 하고..법전원도 지금 성호관을 리모델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이전하면서 .벽체를 부수거나 하는 일은....일체 없고요. 가능하면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 비용 만해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사 업체에 맡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캠퍼스플라자로 나갈 때도 강의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처랑 본부 부서가 술선수범해서 먼저 간 겁니다.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고생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의장 강명구 : 그런 어려움은 저희도 다 알죠.

기획처장 김민구 : 다시 돌아올 때도 벽체를 부수는 등의 공사는 안하고 그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의장 강명구 : 그래도 강의실 같은 거 칸막이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 간서명 란 >



기획처장 김민구 : 가능하면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의장 강명구 :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성호관 같은 곳도 리모델링하려고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또 다시 이전을 하겠다니 그 비용이 든 부분들이 눈에 안보이겠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실제로 행정부서 옮기는데 187백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의장 강명구 : 이 부분만 보면 그만큼의 비용만 들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사 가고 나오고 하는 쓰이는 비용 및 불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잘 고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성호관 리모델링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스쿨 들어 온다 만다 해서 설립자가 와서 고쳐라 해서...고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간사 김근태 : 지금 성호관은요. 이번에 그 전의 리모델링한 것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하고요. 오로지 1층에 보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2층하고, 법전원 자료실 하면서 통으로 쪽 열면서 전체 벽체를 허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이동하기 위해서 중간만 잘라냈습니다. 강의실 그대로 쓰다보니까 찢래낸 부분만 벽들을 쌓아가지고 콘크리트 하는 그 정도만 비용이 들고요. 법전원에 보면 모의법정이 있습니다. 모의법정 비용만 사실 듭니다. 나머지는 일체 건들지 않습니다. 교수 연구실도 그대로 쓰고요. 모든 구조를 그대로 씁니다.

의장 강명구 : 건물만 리모델링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간사 김근태 : 네. 건물 리모델링은 성호관이 낡았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성호관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지금 법전원을 옮기면서 성호관을 기초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강의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왜 지금 성호관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면 동선상 성호관을 기초교육대학과 강의동으로 쓰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는 거고요. 그래서 동선 등이 굉장히 좋아지죠. 리모델링 비용을 들인 만큼 성호관은 좋아져졌잖아요.

의장 강명구 :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하여간 긴 기간으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 간서명 란 >

의장 강명구  - 20 -

들어간 것은 사실이니까 매물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평의원 조중열 : 추경보고서 11페이지에 미집행 국고 반납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사업에서 얼마나 반납되었다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전년도 결산사항인데요. 전년도 결산에 저희가 차기이월자금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차기이월자금으로 넘겨서 올해 추경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내용인데요. 전기이월자금이 275백만원인데요.

평의원 조중열 : 그럼 그 비용을 반납을 안했다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전년도 국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올해 반납을 하기 위하여 잡손실계정으로 전기이월자금을 올해 지출계정항목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지출계정이 있어야지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실제로 반납한 금액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75백만원이고 나머지를 포함하여 325백만원 입니다. 중소기업인력개발센터, 사회진출팀, 학생지원팀 세 부서에서 국고를 미집행 한 것을 이월하였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게 합쳐서 425백만원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다 합친 금액은 325백만원입니다. 아래 1억원은 전년도에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반환할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325백만원에 해당하는 국가 돈을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예산팀장 조정숙 :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출팀에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인턴십 직장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꼭 인턴십을 가는 학생들에게만 주는 국고 프로젝트인데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진출팀이 노력해서 전년도 보다 100백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었는데 실제로 참여한 학생수가 전년도 수준밖에 안됐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그 다음에 큰 금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큰 금액이 학생처에서 국가 드림 장학이라고, 근로장학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실험실의 대학생들의 근로장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다른 TA 장학 또는 면학 장학 등으로 융통해서 사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도 국고를 반납하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최대한 대체해보려고 노

< 간서명 란 >

의장 

력했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해서, 그렇다고 규칙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ACE 사업이 우리가 확정된 지 2달 정도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빨리빨리 예산 집행이 시작되어야 할 거 같은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 같아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건 사실이고요. 좀 더 속도를 내자고 해서 컨트롤타워를 결정하는 것 등이 이제 결정이 돼서 발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오늘 결재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교무처장이 실제 단장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시나요? 교무처장이 되게 바쁘실 텐데 그거를 다 총괄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처장 김민구 : 이번에 교무부처장을 발령을 냅니다. 부처장님이 상당 부분 처리하고 그다음에 교무처장님 진두지휘해서 ACE를 진행합니다. 부처장 발령이 났습니다.

의장 강명구 :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평의원 서용훈 :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학보사나 AEBS 방송사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전년도 대비 자료를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그렇게 바로 행정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에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저희가 모든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 운영성경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든 부서가 2%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삭감 되었을 것입니다.


평의원 서용훈 : 그렇다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각 언론사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전년도 결산액 대비 올해 예산액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왕진욱 : 저도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추경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학부 시간강사료가 45천원에서 47천원으로 올랐는데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등록금도

< 간서명 란 >

의 장



내리지 않았는데 시간강사료가 올랐다 라는 편협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강사료가 오른 것이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반드시 올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여쭙보는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다른 대학은 얼마나 주는지 따져 봐야 되고, 우리학교가 결코 비싼 건 아닌데 지금 얘기가 정부가 앞으로 시간강사에 대해서 지위를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강사들의 위치를 전임교원과 같은 위치로 바꾸고 2013년도까지 시간당 8만원 수준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건 틀림이 없고 앞으로 년 계약을 해야 합니다. 년 계약을 한다는 것은 4대 보험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47천원은 우리 주변 학교의 시세에 맞추고 있어요. 우리 학교 랭킹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금액일 것입니다. 우리학교 등수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금액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인상하게 되는데 시간강사료를 적게 인상하는 것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그 분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자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50천원으로 인상하자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산팀에서 예산상 힘들다고 해서 반만 인상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평의원 서용훈 : 추경 자료를 보면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금액이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원이나 직원 급여의 경우 단위별로 이렇게 명시가 될 수는 있는 건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보통은 전임들은 시간당으로 책정되지가 않죠.

평의원 서용훈 : 시간당으로 여주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연봉이든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는 건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교수 같은 경우 연봉제를 하고 있고요 직원은 호봉제로 하고 있죠. 직급별로 평균임금은 얼마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직급마다 교수도 알겠지만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구분되고 우리는 정교수도 현재 시스템은 정교수 A, B, C, D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A에서 B로 올라가야 되고 B에서 C로 올라가야 되고 5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교수들은 평가제를 하고 있고 직원들은 평가제가 아니고 호봉제로 구분됩니다.

평의원 서용훈 : 호봉과 평가기준표를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 간서명 란 >

의 장  - 23 -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공개를 할 수 없고 보여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보여줄 수 있겠죠.

평의원 서용훈 : 열람은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지만 대외에 공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떤 원리가 되냐면 실제로 우리학교의 순위에 맞춰서 교원보수 수준을 보면 급여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제가 여쭙보는 이유가 예산 추이를 볼 때 총액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료를 볼 때 총액으로 본적은 있는데 총액기준이 인원수 대비, 인원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교수 초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단순히 월급만 볼 것인가, 아니면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수당 같은 게 더해져서 연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 경우 연봉은 비슷한데 개인수당을 더 받는 곳도 있고, 우린 수당이 없고 그래서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상위대학보다 낮아요. 나쁘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자료요청은 힘들더라도 열람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산팀장 조정숙 : 추경에서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 중 전임교원의 보수증가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추경자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데 불구하고 학생회장이 만약에 참고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와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보여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게 되면 공개한 사람이 책임이 있겠죠.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평의원 서용훈 : 예 , 그럼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어느 정도의 감을 잡기위해서 보여 달라고 한다면 학생회장으로서 보여 달라고 하신다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해진 : 우선 추경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시고, 자문을 하시고 그 외의 내용은 나중에 논의하시죠.

평의원 서용훈 : 네. 알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추경과 관련해서 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 그것만 정리해주시고, 다음번 학칙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대의 해외출장 관련 자료와 함께 언론3사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처장님 나가시기 전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평의원 윤갑희 : 국지적인 부분인데요. 입학처 관련한 예산이 감소한 것이 여러 부분 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학교의 경쟁력의 면에 있어서 입학처 활동이 좀 활발해야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을 텐데 입학처 관련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면이 있는 대신에 이번에 우리 총장님이 오시면서 입학홍보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입학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모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입학 홍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과거에 학생선발본부 본부장을 하셨던 분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시면서 홍보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의 지출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윤갑희 :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입학처의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감소가 많아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입학사정센터 예산 국고가 213백만원이 줄어든 관계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장님께서 하고 계신 활동경비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활동하면서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 총장님이 매우 절약하시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입학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총장님이 대구를 방문하셨는데 다음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주대 총장님께서 대구에 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가셨다고 전화가 왔었다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학관련 예산이 감소되어 있어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1차 추정 자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자, 더 없으시면...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좀 쉽게 끝나신 것 같아요. 다음을 기대해주시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예

의장 강명구 :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지금 시작한지 2시간 15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두 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의안 심의안건 1호가 들어와있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칙 개정안 2페이지 보시면 제안요지 개정 사유에 각괄호 해놓은 것이 두 개 있는데 2페이지를 보시면 제31차 대학평의원회를 통해서 이미 공포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3페이지를 보면 이번 제32차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안근거 내용을 보시면, 제31차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이미 심의하고 2011.5.19에 개정 공포한 학칙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효력이 무효다’ 라는 민원이 교과부에 접수 되었습니다. 그 경과를 적어 놓았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보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교 학칙에는 심의 및 공포절차만 명기되어있으며 그 동안 그 절차에 맞춰서 쪽 학칙 개정을 해왔습니다. ‘효력이 무효다’ 라고 민원 제기에 따른 진행경과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2011.6.13에 자유전공학부 한명이 학칙 사전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니 이에 대해 교과부에 답변을 요청하였고 교과부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학교로 확인 전화가 왔었습니다. 학교는 학칙개정의 사전공고를 학칙에 명기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1.6.27 처장회의에 보고하고, 2011.6.30일에 전 부서에 학칙개정안 사전공고 시행을 안내하고 2011.7.4에 교과부 소명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2011.7.8에 저희가 진행한 내용과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교과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또 교과부에서는 민원인이 다시 전화가 와서, 학칙을 개정하고 나서 사전공고 절차를 밟아야하지 않는가, 학칙 개정을 하면서 사전공고를 같이 올렸는데 이것은 위반 아니냐? 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전달하여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교과부에 되물었습니다. 교과부의 얘기는 사전공고라는 것은 알리는 것에 더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며, 학칙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학칙 개정을 하면서 동

< 간서명 란 >

의 장  - 26 -

시에 사전공고를 하는 것에 대해 학교에 우리 법전원이 있으니 확인해 볼 것을 얘기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명기된 것을 학교가 누락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굳이 경과규정 없이 진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학생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처장님과 학생이 약 한 시간 반 가량 통화를 하였습니다.

의장 강명구 : 실제로는 그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의대나 법대를 가기위한 일종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추이를 알았으니 학칙개정(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근태 : 2011.4.19 교무회의 심의의결, 2011.4.29 제31차 평의원회 심의 및 2011.5.19 이미 공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된 안전과 제32차 안전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안전 상정을 보시면 인증제 교육과정을 전문과정이라는 문구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원 약학계열 내 약학과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1학년 1학기에는 석사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이번에는 박사과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대학원인 산업대학원의 산업시스템공학과 내에 비즈니스정보공학 전공이라는 전공을 하나 신설하는 것과, 2011-2학기 특수대학원 내의 학생들의 정원 조정으로 매학기 마다 진행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대학원은 학생정원 변동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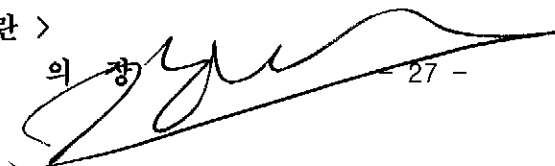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특수대학원 정원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산업대학원이 15명이 늘어나고,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대학원이 3명이 줄고, 법무대학원이 10명을, 경영대학원에서 2명을 줄여서 총 1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간사 김근태 : 다음은 정보통신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에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30명 정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학과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학교는 계약학과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만들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관련되는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고 계약학과 설치학과를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대학원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와 매년 100명 정원의 그쪽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형태의 계약학과 신설요청이 들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학과는 재교육 같은 형태는 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원 외로 산학협력 촉진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상위법에 의한 학칙개정 사

< 간서명 란 >

의 장



전공고절차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임시교무회의에서 7월19일에 통과된 내용입니까?

간사 김근태 : 네

의장 강명구 : 안전 이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평의원 이재호 : 사전공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12페이지 제70조 학칙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5일 동안 사전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평의원 이재호 : 공고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간사 김근태 : 학칙개정 사전공고라는 문구는 기재하였으나 얼마동안 할 것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장 강명구 : 민원인 학생연배는 어떻게 됩니까?

간사 김근태 : 그건 모릅니다. 자유전공학부에 대해 부족한 문제들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전공들은 지도교수가 있는데 지도체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자유전공이 뭐죠?

간사 김근태 : 소속이 없이 와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학부입니다.

의장 강명구 :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한 편법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계약학과 라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형태로 하는 학교가 또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계약학과를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계약학과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는 회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재교육 인원이 없어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 커다란 시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70조의 사전공고가 무엇의 사전공고입니까?

간사 김근태 : 이것은 교무회의 심의하기 전에 공고 하는 것으로 규정류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도 올릴 수 있고 긴급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올릴 수도 있고, 굳이 공고 시점을 명기해서 유연성을 없앨 필요는 없다는 자문에 따랐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 28 -

평의원 박정웅 : 규정상 동안 이라는 문구는 잘 안 쓰는데 5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통상 이상이라고 많이 쓰고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5일 동안이라는 제한을 쓰지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5일 이상하면 되죠.

간사 김근태 : 5일 기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전 근무일수 5일인가요?

간사 김근태 :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학생들이 오는 일주일을 염두 해두었습니다. 20일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질문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장이 공포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 보시면 다 끝난 후에 평의원회에서 맨 마지막으로 되어있는데 검토만 하는 것입니까?

의장 강명구 : 사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견제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평의원 서용훈 : 그러면 사후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자유전공 폐지가 되는 이유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근태 : 제가 원하는 만큼 답변 드리기 어렵고, 지난번 자유전공 폐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자유전공학부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교육적 질관리나 학생 지도 등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는데 어려운 것이 여러 형태로 발견이 되고 있고 들어온 학생들도 찾아가는 전공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장 강명구 : 학교에서 자유전공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진 쉬워도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없애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서용훈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나중에 사견이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전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할 때 단순히 법률이 바뀐 것만 하는 것인지 법률이 바뀐 취지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사 김근태 : 그렇게 길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정 친구대비표 양식의 비교에 개정사유가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서용훈 : 공고 날 때 상세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간사 김근태 : 의견이 수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우리가 학칙개정을 심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일 동안이라는 말이 적절한가 혹은 5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반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거죠?

간사 김근태 :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일단 이것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일 정도는 공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5일과 20일 차이가 뭐죠?

간사 김근태 :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5일은 짧은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그 부분은 5일이상이면 20일이면 상관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우리가 5일 이상이라고 하면 다시 교무회의에 갔다가 여기 또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다른 것이 아니고 학칙 개정인데 5일이나 20일로 날짜를 정하나요. 보통 주 단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약간 걱정되는 측면은 있지만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다음번에 개정하시는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재호의원님, 서용훈의원님, 윤갑희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우려를 주셨습니다. 5일 동안이라고 명시하면 나름대로 행정 편의적인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재 상정을 하게 되면 교무회의 가서 다시 와야 하는 그런 결정상의 번거로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타 대학의 예를 보면 3일간 공고하는 대학도 있고, 20일 공고하는 대학도 있고, 기간 자체를 명시할 안 한 곳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차기회의에 기간을 반영하거나 의견을 참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런 토를 달아서 통과시키고 다음번에 다시 상정해서 가볍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오늘 통과하고 나중에 다시 수정한다는 건가요?

의장 강명구 : 물론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고 교무회의에서 5일 이상으로 하든지 개정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통과 시에 긴 토의 없이 안건이 넘어갈수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30 -

평의원 이재호 : 이미 심의해서 통과된 여러 개의 학칙개정이 홀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과를 하지는 겁니다.

평의원 서용훈 : 일단 통과시키지만, 학칙개정에 관한 공고가 두 번 나가는 것입니까?

의장 강명구 :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시급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개정해서 통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상 동의를 하지만 통과를 시킨다는 가정 하에는 반드시 5일 동안이라는 것을 수정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간사 김근태 : 차기회의에 수정하도록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서용훈의원님 말씀은 5일 동안이란 말을 바꾼다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면 교무회의에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또 오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평의원 서용훈 : 디펜스 된 다음 또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서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사 김근태 : 이 조항만 옳니다.

의장 강명구 : 이 조항만 오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이라는 얘기입니다.

평의원 서용훈 : 그럼 또 공고를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간사 김근태 :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일단 공포를 하고 차기 회의에 여기서 의견을 준 조건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다음에 학칙개정이 있을 때, 평의원회 열릴 때..

의장 강명구 : 그때 또 공고는 하겠죠.

간사 김근태 : 그러면 단서조항을 수정되는 공고기간에 맞추어서 공고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5일은 분명히 아니고 5일 이상이나 정해진 기간을 반영해서 공고할 때에 수정된 기간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구가 바뀌는 것인데 공고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제 생각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의원 서용훈 : 학생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런 절차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평의원회의에서도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안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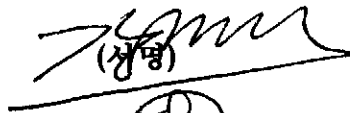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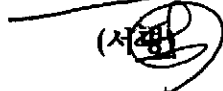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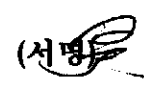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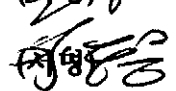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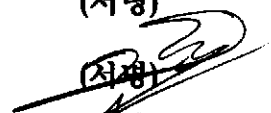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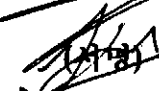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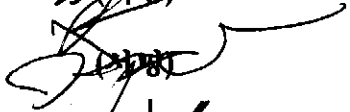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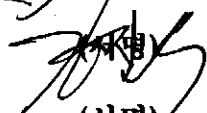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정리하죠. 대부분 의원님들이 5일 동안은 너무 짧다는 것에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는 시키되 다만 단서조항을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교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통과시킨 조건에 맞게 사전공고를 하고 저희한테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쉽게 통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런 조건 하에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걸로 회의 마치겠습니다.

모두 : 수고하셨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 32 -

2011년 7월 22일

의 장	강명구	 (서명)
부의장	주동표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조중열	 (서명)
평의원	박정웅	 (서명)
평의원	박철균	(서명)
평의원	서용훈	 (서명)
평의원	왕진욱	 (서명)
평의원	이해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감희	 (서명)
기 록	김근태	(서명)